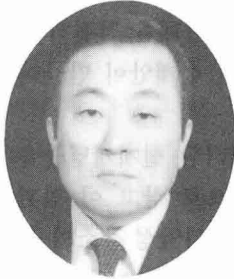


# 미국의 새로운 국방획득 전략



金容求 國科研 기술협력실장

## • 미국의 군사 전략

\* 美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淸外에 천명한 주요 요강.

— 예기치 못한 불안정한 세계에 대한 경계심으로, 변화된 위협을 잘 검토해서 적절하게 표현

— 기본전력은 위협을 제한하고, 돌발사태를 극복할수 있도록 계속 발전, 확장되고 있음.

— 기본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및 예산 편성은 만반의 준비속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

— 걸프전에서의 새로운 전략수행은 최소한의 희생으로, 새로운 정치적, 국민적 기대에 부합되는, 결정적이며 신속한 승리.

\* 걸프전의 전략은 기본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보충 설명하고 있음.

## • 국방획득에 대한 새로운 접근

- 연구개발 강조
- 기존 기술의 질적향상과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고도의 신뢰성
- 철저한 시험을 통한 전면적 생산  
(체니 국방장관, 92년 2월)

\* 제한된 예산으로 연구/개발에 초점을 두어 불확실한 장래에 신중하게 접근하고, 세계 수준의 병기를 각부대에 공급할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함.

— 최소한의 희생으로 大勝을 거두는 것은 기술이 관건.

— 지속적인 기술도입은 개발/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바람직한 방법

—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 연구소 및 시험장의 보다 많은 첨단기술개발이 필요

\* 생산감소에 따른 기업투자의 변화는 근로자, 생산시설 및 계획예산 하락에 영향을 줄 것임.

## • 방위산업기반의 현실태

\* 1986년 美 국방부가 50%이상 증가키로 결정한 획득예산에 현저한 쇠퇴를 초래할지도 모를, 미래예산의 극심한 삭감

— 모든 연구개발/조변, 전력구조 삭감의 균형적 배분?

— 계획방향의 불확실성과, 위험성을 내포한 산업계 구조변경의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수준 현행지표와 프로그램으로는 美 국방부가 앞으로 3년, 5년 혹은 10년간 요구하는 산업계능력을 계획할수 없음.

— 그동안 美 국방부가 요구하는 최종목표가 무엇이나는 논의가 있건 없건간에, 실제로 모든부문에서 과도하게 국방예산의 감소가 야기 되었음.

— 불확실성은 현대화된 생산시설, 새로운 장비 및 전력을 재훈련 시키는데 대한 자본투자를 주저하게 만듦. 그러나 아직도 국방부는 미래의 시제품, 저조한 생산재건을 위한 현대적이며 융통성있는 생산능력을 필요로 함.

— 직접적인 해외판매에서도 전망은 불투명. 대규모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빈번히 미국의 군축계획에 직면한 장비조변에 의존해 수출승인을 획득해야 함. 또한 유럽과 태평양의 도전에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연합사업체들과도 경쟁해야 함.

\* 앞으로 군이 요구하는 상품의 개발능력을 상실한 업체들이 발생할 것임. 장차 존속될 미 군규모와 일치하는 방산업체의 적정 수준 유지가 필요.

• 부정적 경향

-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외국투자의 증가
- 산업체의 연구개발 및 투자의 감소
- 일시적인 시스템결정의 결과로 경쟁속에 있는 업체들의 자연적인 붕괴

\* 이러한 조건들이 심각한 반면, 또 다른 경향이 동시에 발생함.

— 현금이 풍부한 외국 투자자들의 美 방산업체 인수 추구, 이것은 기술이전, 미국 방위소요에 대한 장기적 위탁, 위기시의 잠재적 대응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침.

— 매출기반은 미국의 역량과 취업을 감소시키면서 해외로 이동.

— 산업체는 반대급부없이 연구개발 및 개선에 자본을 투자하지는 않을 것임. 조변없는 경제적 획득모델은 발전이 없으며 업체는 자본투자에 수반되는 보상을 요구. 예를 들면 조변없이 한 회사가 연구개발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으며, 계약된 연구개발사업이 이익으로 전환되는 시점은?

— 산업체는 현재 그때 그때 시스템을 결정하여 경쟁속에서 「자발적」으로 붕괴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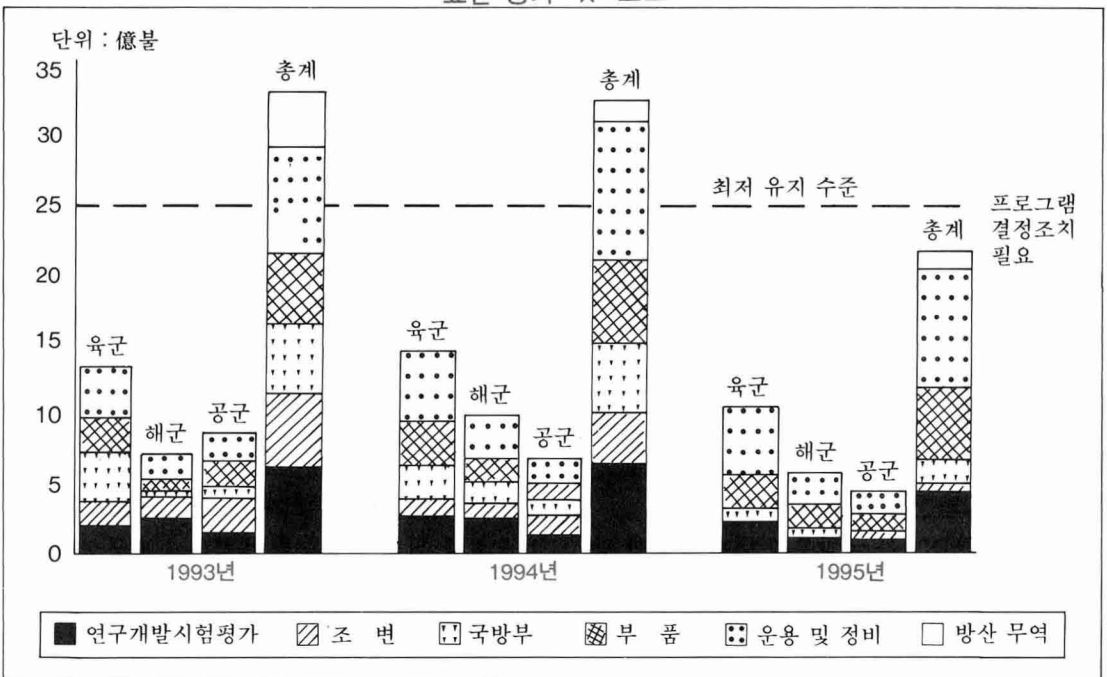
\* 산업체는 국방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기꺼히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.

\* 현재, 국방부의 장기적 방향제시와 분명한 전망을 필요로 함.

• 방위산업기반의 축소—기정사실!

- 그러나 축소는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
- 그렇지 않으면 軍을 위한 국방부 요구와,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체 기반능력간에 불균형 발생

표본 평가 "X" 요소



\* 업체들은 과잉시설을 제거하고 변화된 방산시장에서 경쟁하고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구성할 것임. 그러나, 국방부가 군구조를 재편하듯이,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축소할수 있기를 원함.

- 신중한 결정
- 앞으로 軍의 요구와 항구적인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배려.
- 산업기반과 對軍지원의 균형.
- 취업인력과 공급기반에 대한 책임있는 보호를 원함. 걸치레적인 것보다는 합리적이며 신중한 방법.

\* 「자발적 붕괴」가 계속된다면 첨단기술을 개발, 생산할 산업기반은 소멸되고, 공개된 전략수행능력과 불균형을 초래할 것임.

\* 불균형의 가능성은 완화할수 있음.

• 방산기반을 관리하기 쉽게 축소하는 문제

\* 무엇보다 먼저, 방위산업기반요구의 모든 부분에 배려하지 말것, 상업기술 및 공용기술의 개발, 생산이 국방부의 요구를 만족하게 충족시킬수 있음.

- 그러나 어떤분야는 독점적이며 상업적인 시장관료가 없음.

- AUSA/ADPA의 검토 목적상 5개의 방산 독점 부분 : 重전투차량, 회전익 항공기, 미사일, 고도기술 전자장비, 탄약.

- 헬기 및 전자장비 부분이 상업용으로 응용될수 없는한 국방부의 요구는 특별한 범주에서 독점성을 유지시키기에 충분

\* 민간, 상용 및 정부 능력간의 균형

\* 국방부의 결정은 신중한 분석에 기반을 두어야 함.

\* 현재의 관건은 먼저 감소된 산업부분의 수를 파악하고 국방부 요구를 결정. 한편, 보다 큰 부분별로 분석이 동시에 수행되고 있음

• 조사 방법론

\* AUSA/ADPA는 국방부가 먼저 중요한 방산 독점분야를 확인할 것을 제의

- 헬기, 미사일, 전자장비, 탄약 등 많은 부분의 보급선이 교차되기 때문에 확인작업은

국방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.

- 각 군에서 결정할 경우 전반적인 현황고려 실패.

\* 소주기동안 시스템을 획득할 능력과 각 군사적 독점부분의 균형된 복합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최저예산수준을 결정. 탄약은 특수한 경우로 독특한 해결방법이 필요.

- 균형된 복합프로그램으로서 연구개발 조변/생산, 구형시스템의 향상/개량, 부품, 운영 및 정비예산 등을 예정.

- 기본계약자, 하청계약자, 정부에게 제공해서 다음 능력을 구비토록 함 : 연구개발, 기술활동, 시스템 통합 및 소시스템의 형상관리, 사전 계획된 프로그램 향상 발전 및 수행, 시스템 소주기에 걸친 군수, 정비 유지.

- 우수하고 건전한 매도인 포함.

\* 그다음엔 계획된 방산무역 부족량 확보를 위해 방위 5개년 계획수준과 비교함.

\* 필요하다며 각 부분의 전량복합공급능력 유지를 위해 기존예산수준 범위에서 방위 5개년계획을 재구성.

• 확실한 복합계획은

전반적인 국방부 수요를 충족

- 안정을 위해 방산업체에게 장기계획 자료를 제공해야 함
- 각 부분에서 계약자/정부가 공동으로 복합된 계획을 유지해야 함
- 현용체계의 계속적인 생산
- 재고 시스템의 사전계획생산개량
- 방산무역의 정부지원
- 통합을 위한 장벽제거에서 기타 정부 부처 및 의회와 협조
- 충분한 연구개발 시험평가
- 최고의 가치를 위한 경쟁 구축

\* 업체의 방산독점부분 성장여부는 국방부 수요를 위해 현상황을 계획하고 재구성하는데 달려있음. 이를 위해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킬 능력을 재구성하고, 투자를 보장할수 있는 국방부의 장기계획자료가 요구됨.

\* 최소한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각부분의 방산독점생산능력은 독자적, 혹은 선별적인 결합을 통해 성취됨.

— 軍 요구가 존재하는한 현존시스템의 계속적인 생산.

— 기술도입을 통한 재고시스템의 사전계획 생산개량.

— 국가안보정책과 방산업체의 요구가 일치된 상태에서, 방산무역 지원, 절충교역예산 삭감을 돕기위해 각 부분에서의 무역기회 활성화가 필히 계속되어야 함.

\* 생존하기 위해 업체들은 통합되어야하며 법무부와 의회는 건전한 방법으로 통합을 지원해야 함. 2개의 취약한 업체보다 1개의 견실한 업체가 새로운 기술획득에서 국방부의 기대와 요구를 적절히 만족시킴.

\* 충분한 연구개발시험평가 예산.

— 독자적 연구개발 회복을 위한 FY92 법안의 실행

— 생산과 제조공정에 독자적 연구개발 허용

\* 「최고의 가치」를 위한 계획안 요구 수정. 여기에는 연구개발, 공정연구, 시스템 통합 및 소주기 관리에 관한 능력이 포함

• 업무수행의 새로운 방법

\* 국방부는 시스템의 전주기 동안 군수 및 정비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을 위한 완성인도계약을 추구할수 있음.

— 정부계약제도 및 구조의 합리화, 단순화.

— 단일 계약자에 대한 각군의 품질, 통합, 비용통제에 책임.

— 생산과 공정개발을 위한 전반적 범위의 숙련/능력 관리가 요구됨.

— 소규모의 시제품 생산, 또는 대규모의 생산 가운데 적절히 선택해, 제한된 예산을 요구되는 시스템 개발, 생산에 집중.

— 높은 품질, 풍부한 경험의 업체기반 현대화 및 격동기에 대한 대응책 유지.

— 기술도입 및 사전계획된 프로그램 향상 촉진.

— 단일형상관리로 비개발/공용기술조변 이용을 허용

— 중요 숙련, 기술 및 절차 유지.

\* 기본적이며 축소시킬수 없는 핵심 창능력, 탄약공장 및 병기창을 정의하고 방산독점부분을 최소 기본부분으로 유지

— 재고시스템중에 비핵심 분야의 성능향상은 사기업에 일임.

— 가능하면 기초 재편성 및 폐쇄로 통합.

\* 공용/비개발 품목의 시스템통합을 허용하기 위한 비용회계기준과, 엄격한 설계 및 지표에서 야기된 장애를 제거.

— 보다 낮은 비용.

— 잠재적 공급기반 확대

— 단일형상관리로 비개발/공용 품목의 용이한 통합 가능.

• 추진 관건

- 소량획득예산에 맞춘 방산기반의 재구성은 기정사실
- 자연적으로 현행 경쟁절차를 사용하는 방법
- 계속적인 경쟁—경쟁이 기업 생존을 결정
- 기업계획이 기업정책은 아님
- 군사독점분야에 대한 조사와 식별
- 기본적인 핵심 정부능력의 결정
- 공용생산에 대한 장벽제거
- 산업계획 및 재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기 전망과 지도력 제공

• 앞으로의 전망

\* 유일한 국내 구입자 및 공급요구자로서 국방부는 필요한 방산업체를 보호할 특별한 책임이 있음.

— 미래에 국방부가 기대하는 장기전망을 기업체에 제공해야 업계의 재구성에 있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가능케 함.

— 국방부의 개선된 정책은 방산업체가 국가안보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을 보장할 것임. \*